

(5) 1924년 가을 지주들의 대응

1924년 여름의 대검거로 핵심 간부가 검거된 순천면농민대회와 황전면농민대회는 1924년 가을부터 활동이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주들과 순천경찰은 이 틈을 노려 대반격을 개시했다. 황전면 지주 박승수(朴勝洙)와 박승림(朴勝林)은 농민대회 간부가 수감된 틈을 타서 3~4년치의 지세를 강징하고 소작권을 박탈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¹⁾ 김학모는 농민대회 간부들이 구금된 틈을 타 소위 ‘작조(昨條)’의 명목으로 농민수탈을 강화하였다.²⁾ 김학모의 마음은 ‘작조’가 대체 무엇이냐는 소작농민들의 질문에, “순천 소작운동이 격렬한 관계로 대정 11, 12년 양년 지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세를 소작료로 환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전년의 추수기와 마찬가지로 소작료 4할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개시하였다. 1924년 10월에 열린 농민대회연합회 총회는, 군 농회(지주회의 후신 조직)에서도 검사할 때에는 입회인을 파견해달라고 군당국에 요구할 일, 소작권 보장은 5개년 이상으로 하며 공인할 만한 과실이 없을 때는 이동의 폐가 없게 할 일 등을 결의하였다. 이런 결의는 뒤이어 열린 각 면 농민대회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³⁾ 그러나 앞서기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던 황전면과 순천면의 경우는 간부진의 검거로 활동이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 1월 현재 순천군에는 22개의 농민단체가⁴⁾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나 이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각 면에서 발생한 분쟁에 그 면의 농민대회가 아니라 순천농민대회연합회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25년 6월 24일 순천농민대회연합회가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조직의 명칭을 순천농민연합회로 변경한 것은⁵⁾ 이런 사정을 반영한 조직 변경이었다. 이때부터 순천농민연합회는 앞서기와 달리, “순천 8만 6,000 소작농민의 전 의사를 합하여 조직한 기관”임을 자임하면서 농민대회를 대신하여 각종의 활동을 도맡아 처리하기 시작했다.⁶⁾

가령, 소작료를 두량(수봉)할 때 사각두(四角斗)나 석유상자(石油箱子)와 같은 부정용기를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이영민 등 순천농민연합회 간부가 쌍암면 등지에 직접 출장하였고, 황전면 용림리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도 이영민이 직접 출장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동초면 향교답 도조남봉사건이나 주암면 부정도량형기 사용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농민대회가 개입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1925년 12월 7일에 열린 순천농민연합회 임시대회에서 각 면의 회원정리에 관한 건이 결의되었다는 사실 등은 당시 각 면 농민대회의 활동이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⁷⁾

1) 『동아일보』 1925. 3. 22 · 『조선일보』 1925. 4. 18.

2) 『동아일보』 1925. 1. 2.

3) 『동아일보』 1924. 10. 8 · 1924. 10. 14 · 『시대일보』 1924. 10. 12 · 『조선일보』 1924. 10. 17.

4) 『동아일보』 1925. 1. 28. 순천농민대회연합회, 서면농민대회, 순천면농민대회, 상사면농민대회, 별량면농민대회, 주암면농민대회, 도사면농민대회, 쌍암면농민대회, 황전면농민대회, 월등면농민대회, 송광면농민대회, 외서면농민대회, 낙안면농민대회, 낙안 창령리소작회, 동초면농민대회, 동초면 구룡리소작인회, 해룡면 소작인동맹, 해룡면 용두소작인동맹, 해룡면 제1구소작동맹, 해룡면 제2구소작동맹, 남선농민회연맹회, 순천절초동맹.

5) 『동아일보』 1925. 6. 27. 순천농민대회연합회는 각 면 농민대회의 협의기구였으나 각 면 농민대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자 농민대회연합회를 농민연합회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6) 『동아일보』 1925. 10. 14.

7) 『조선일보』 1925. 11. 29 • 1925. 12. 16 • 1925. 12. 21 • 『동아일보』 1925. 12. 1 • 1925. 12. 10.